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가시밭길'

나주 범대위 "수용 거부…공론화 검토 전남도에 분노" 갈등의 골 깊어져

전남도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 합발전소와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 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나주 일부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 수용 거부를 선언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지역 SRF의 나주 열병합발 전소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SRF처리가 힘들어진 광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지난 1월 중단 된 뒤 광주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9 만2000여톤의 생활폐기물(가연성)이 매 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檢, 이 지사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

정(@08__hkkim) 사건과 관련, 27일 문

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

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

분까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이번 트위터 계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씨 명의

의 휴대전화는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 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김씨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검찰이 일상적으

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

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김혜경씨 휴대폰 못 찾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론화로 결 정하자는 것은 정치와 공무원의 존재 이유 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발 전소 가동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공론화 위원회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해결방안으로 시민이 참가하 는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할 경우 직접 피해 지역인 반경 5km 이내의 시 민이 참여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1년 2개월 이상 악착같이 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온 전남도

워 온 것은 작년 9월 SRF 발전설비의 시 험가동 당시 갑작스레 들려온 공기청정기 의 경고음에 이어 아이들에게 찾아온 원인 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 피부염, 두통 등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에 소각되는 쓰 레기 중 나주 발생량은 3%에 불과하고 97%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순천·목포·신 안·화순·구례의 것"이라며 "쓰레기는 발생 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원칙

범대위는 "그동안 공론화를 통한 해결은

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저 최근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우리 건 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남도는 찬반 갈등이 거센 SRF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 지만 시민 반발로 공론화 과정에 가시밭길 이 우려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가 동중지를 앞두고 그 대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SRF생산시설을 조성했지만 나주 열 병합발전소 반입이 중단되면서 생활폐기 물을 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있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 추진연구소(JPL)에서 연구원들이 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호의 화성 착륙 성공 신호에 환호하고 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무결점 착륙

발사 206일만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 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26일(현 지시간)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 (Elysium Planitia)에 '무결점' 착륙을 했다. 인사이트호는 착륙지에서 태양광 패널도 성공적으로 펼치고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조만간 화성 지 하세계에 대한 탐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화성 탐사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 시작된 것이다.

인사이트호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54분께(한국시간 27일 오전 4 시 54분) 화성 안착의 낭보를 알려왔다. 이 시간은 인사이트호가 화성에서 지

구까지 송신하는 데 걸리는 8.1분도 포 함돼 있다. 즉, 인사이트호는 8분 전에 이미 화성에 착륙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5일 발사돼 206일간의 긴 여 정 끝에 4억8000만㎞를 날아 최종 목적 지에 다다른 것이다.

인사이트호의 안착 신호에 "착륙 확인" (Touchdown confirmed!) 발표가 나 오자 캘리포니아 제트추진연구소(JPL) 관제소는 환호의 도가니에 빠졌다.

인사이트호는 극초단파 안테나로 위치 신호를 보낸다. 관제소는 인사이트호와 함께 발사된 큐브샛 마르코 2대 가운데 한 대로부터 인사이트호의 성공적인 착 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호가 착륙지의 화성 표면을 찍은 첫 사진도 큐 브샛 마르코를 통해 전송됐다. /연합뉴스

태양광 업체 대표 논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퇴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전날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혀와 이날 오전 의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최 사장은 사장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 업 및 전기발전 등과 관련한 업체 대표로

2016년 설립된 전력 및 통신 기기류 사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설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최 사장

형제복지원 생생한 증언…눈물 쏟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

문무일 총장, 수사 은폐・축소 의혹 사과

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검찰 수장인 다"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나. 죄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쏟아냈다.

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 을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훌 쩍 넘은 당시의 피해상황을 하나도 잊지 못한 듯 생생하게 증언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81년 형제복지 원에 처음 끌려가는 등 세 차례나 형제복 지원에 입소했다는 김대호 씨는 "50m 근 처 여인숙이 집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보다.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 내주지도 않고 차 안에서 감금하고 구타했 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잡아가 는 것이 말이 되나. 형제복지원에 잡혀가 는 바람에 친구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흙벽돌 지고 올라가 고 그랬다. 군인도 아닌데 1소대, 2소대 이 런 식으로 부르고, 잘못을 안 해도 단체로 기합을 줬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배우지 못한 것이 진짜 한스럽다"며 눈물을 흘렸

김씨의 사연을 들은 문 총장은 감정에 복받치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휴지를 건네받고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문 총장 은 준비된 사과발언 자료를 낭독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목이 메는 듯 발언 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다.

감정을 추스른 문 총장은 "검찰이 외압 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 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 아들인다"며 피해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논란을 빚은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이 27일 사퇴했다.

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 해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이에 따라 7조원 대의 태양광 발전 시

이 적합하냐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최 사장은 이 외에도 전주지검으로부 터 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 등 매입함. · 인접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매매 - 6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연합뉴스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 - 6833 - 1600 직통전화 062)513-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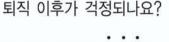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 2018년도 동계학기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감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 완료 1억 7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있음 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있음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완도읍 새모텔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가이하 23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77평**
- 사무실 전용. **전체 올수리.** 즉시입주가
- 20층중 20층, **전망최고**, 양동/하천방향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매매 3억5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에 월150만원 임대 책임
- 문의. 010-6834-7400